

금주의 기도

종말을 향해 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그 말은 바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기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23절

은사적 표현, 인터넷 예배 활성화... 채치리더스.컴, 개리 니호프 목사의 2019년 5가지 파격적 교회문화 트렌드 소개

강사이자 팟캐스터인 캐리 니호프(Carey Nieuwhof)는 전직 변호사이자 커넥서스교회(Connexus Church)의 개척 목사다. 커넥서스교회는 캐나다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다. 6백만여 명의 조회 수를 가진, '캐리 니호프 리더십 팟캐스트(Carey Nieuwhof Leadership Podcast)'는 오늘날 최고 지도자와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출현한다.

니호프 목사는 주변의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은 이때에, 2019년에는 교회 지도자가 어떤 동향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 라는 관점에서 2019년에 다뤄져야 할 5가지 파격적인 교회 트렌드를 소개한다. 그는 지난 3년간 파격적인 교회

동향에 관한 글을 쓰며 항상 새해를 시작했다. 바로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가 문화의 동향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복음으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지도자는 결국 자동차가 다니는 시대에 자전거를 타고, 온라인 쇼핑 몰보다는 근처 가게를 이용하며,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필름을 넣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강조한다.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싶다면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 2019년에 벌어질 5가지 파격적인 교회 동향을 소개해준다(5 Disruptive Church Trends That Will Rule 2019).

인터넷 예배에 실제 인력배치, 소비자중심 접근 영향력 상실, 나쁜 직장문화 배격

1. 인기 있는 교회가 주춤하는 동안 교회의 은사적 표현(Charismatic Expressions)을 강조하는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동향이 생겨났다. 은사적 표현을 강조하는 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성장세를 보이는데, 이들 교회는 예배와 설교, 문화에 대해 더 은사적인 표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은사적'이라는 의미를 '신학적'으로 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는 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고, 이런 교회는 예배와 교육, 그리고 가르치고 모으는 방법이 좀 더 의미심장하고 은사적이다. 몇몇 특징은 이런 동향으로 중

합해볼 수 있다:
 △단순히 수동적인 대중들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
 △머리에 말하는 것 뿐 아니라 가슴에 말하는 설교자.
 △그들이 가르친 만큼 강하게 설교할 수 있는 전도자들.
 △규모와 상관없이 어쩌다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실제로 서로 관계를 맺는 성도와 그들의 사명.

△내재 뿐 아니라 초월의 순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개인적이다. 더 감정적이다. 더 진짜 같다. 그리고 당신은 이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논리와 정의에 허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3면으로 계속>

UMC 특별총회 “전통주의 플랜” 본회의 상정 한인교회들 한숨 돌렸다!

미연합감리교회(UMC)의 동성애 정책을 결정하는 특별총회가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폐회를 하루 앞둔 25일 보수적인 “전통주의 플랜”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통과가 유력시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나의 교회 플랜(One Church Plan)이 부결되고 전통주의 플랜(Connexions Plan)이 상정되는 대반전이 연출된 것. 이에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었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전 세계 4만4천여 개의 교회와 1,200만 신도를 가진 미국연합감리교단(UMC)이 성소수자 이슈를 공식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여서 초미의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지상을 통해 소개된 대로 이번 총회는 3개의 플랜인 전통주의 플랜(Traditional Plan), 하나의 교회 플랜(One Church Plan), 연대적 총회 플랜(Connective Conference Plan)이 상정안건으로 올라왔다.

UMC총회는 미국 총회와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총회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이 모여 투표를 통해 안건을 상정 및 통과하게 되는데 미국 총회와 해외총회의 대의원 비율은 6대 4다. 미국총회의 경우 총감독회에서 하나의 교회 플랜을 선호하고 있기에 이번 특별총회에서는 그동안의 UMC의 노선에서 탈피해 성소수자 이슈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교회 플랜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 적대적인 해외총회의 대의원들은 모두 전통주의 플랜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이 되기에 신학적 노선이 다양한 미국총회의 대의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가 변수로 여겨졌지만 결국 미국장로교(PCUSA)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 쪽으로 예상이 됐다. 그러나 총회 투표를 열었을 때 대부분의 예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반전이 연출됐다.

25일 오전에 열린 임법위원회에서 총대들은 “전통주의 플랜”은 56%(찬성 461, 반대 359)의 지지, “하나의 교회 플랜”은 47%(찬성 386, 반대 436)의 지지, “단순한 플랜”은 40%(찬성 323, 반대 494)의 지지를 보였다.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전통주의 플랜”이 본회의에 상정돼 마지막 날 26일 투표에 들어간다. 또 “전통주의 플랜”과 함께 일정한 제한을 두고,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건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총회는 864명이 대의원으로 참석했으며 대의원 가운데 한인인 곡치선·박종우·장위현·이인용·툼 최, 임우재 목사와 평신도 총대인 김형준 장로(오라클로마 한인제일교회) 등 한국인 대의원과 예비 대의원 20명, 그리고 박정찬·정희수 감독, 조영진 감독(은퇴) 등 3인이 참석했다.

한편 UMC 특별총회는 1970년 총회가 Methodist와 Evangelical United Brethren 교단의 합병문제를 다루기 위해 처음 열린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준호 기자)

3면
시론
은하곤 목사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13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라인 프로그램),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장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 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별정 가격별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격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sb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3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3rd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제위께 문안 드립니다.
 제 43회 총회소집을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예약 일정과 등록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총회일시 **주후 2019년 5월 21일(화) - 5월 24일(금)** (3박 4일)
 2. 총회장소 **HILTON LOS ANGELES AIRPORT**
 5711 W. Century Bl. L.A., CA 90045 (Tel: 310-410-4000)
 3. 숙 식 비 총회 기간의 숙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미화(USD)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9일)	2차(3월 9일)	3차(4월 6일)
2인1실(1인당)	\$ 439	\$ 479	\$ 519
1인1실	\$ 759	\$ 799	\$ 840
부부	\$ 859	\$ 919	\$ 999
원로/공로 목사 (2인 1실)	\$ 219	\$ 259	\$ 299
(부부)	\$ 658	\$ 679	\$ 719

* 각 노회 원로목사님은 총회(제3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참가비 50% 할인된 가격입니다.

1) 개인 숙박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등록비 \$150을 납부하셔야 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식비 \$250을 납부하거나 식권을 구입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2) 총회에 하루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시는 분들 중에 호텔 예약이 필요하신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 및 송금 안내
 등록 신청서와 송금은 아래의 주소로 check 혹은 money order로 보내 주십시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Pay to the order) : THE CALIFORNIA PRESBYTERY
 * 주소 : Elder Choong K. Rha (나충길 장로)
 Evergreen Mission Church
 6952 Van Nuys Bl. Van Nuys, CA 91405

5. 교통안내
 LAX 공항에 내리셔서 짐을 찾으신 후 나오시면 15미터 전방에 호텔 셔틀버스를 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Hilton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매 15분 마다 24시간 운행 합니다. 반드시 LA 공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항으로 오시면 픽업이 어렵습니다.

6. 접 수
 첫째 날 (5월 21일, 화)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저녁식사는 오후 5시부터,
 그리고 개회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1) 등록마감일(4월6일) 이후 신청 시 호텔숙박은 준비위원회에서 보강해 드릴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는 돌려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동시 통역 및 제반사항 안내
 (1) 영어노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통역 시설을 준비하였습니다.
 (2) 문의 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호텔: 고승경 목사 (760) 927-5982
 관 광: 정병노 목사 (213) 820-7240
 총 무: 이준우 목사 (818) 282-6154

주후 2019년 1월 5일

**총회장 김재열 목사
 위원장 김요섭 목사
 서기 이성주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3회 총회 준비위원회

● 발행인 칼럼 ●

대안(代案)의 삶은 타당(妥當)한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인 수준이라 양궁경기를 여러 차례 본적이 있다. 선수가 숨을 죽이며 활시위를 쫓을 때 같이 숨을 죽였다가 휘하고 날아간 화살이 과녁에 꽂힐 때 그 결과에 따라 환호도 하고 탄식도 뱉곤 했다. 우리가 잘 맞았다고 소리 지르는 사이 과녁은 얼마나 아파할까? 정조준해서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온 몸으로 맞아야 하는 과녁이 입이 있다면 “그만, 이젠 제발 그만”이라고 외칠 것 같다. 내가 과녁이라면 나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저런 화살들이 날아올 때 그 화살들에 박혀 단말마(斷末魔)와 함께 이리저리 비틀대다 쓰러질 것이다.

어렸을 적에 동네에 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원형 수도관(水管)이 널브러져 있곤 했다. 그 수도관 속에서 놀기도 했다. 뽕 뚫린 통로는 과녁과는 전혀 다르다. 무엇이 자기를 향해 밀려오더라도 개의(介意)치 않는 것은 그것이 곧 통과해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과녁의 삶이 보편적인 가운데 통로의 삶은 단연 탁월한 대안(代案)의 삶이다.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것을 끌어안지 않고 다 흘려보내니 더 이상 힘들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안’이라는 말은 얼마나 신선한가. 질식할 것 같은 제도권의 교육을 견디다 못해 대안학교가 여기저기서 유행처럼 일어났다. 대안의 삶을 일찍이 노래한 사람이 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마이 웨이(My Way)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선언적 노래이다. 그 가사의 일부는 이렇다.

“친구여, 분명히 말할 게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얘기를 할게요. 난 충만한 인생을 살았답니다. 모든 길을 다 가봤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후회요? 조금 있었죠, 하지만 입 밖에 내서 말할 정도는 아니죠.” 청소년 때나 청년 때 이 노래를 듣고 일탈(逸脫)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요즈음도 대안의 삶을 꿈꾸는 청년들이 그 줄을 잇고 있다. 다소도 발칙한 제목을 가진 “하마터면 열십이 살 뻔했다”라는 책도 그런 삶을 부추기고 있다. 왜 굳이 노력하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사느냐는 것이다. 대안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다. 사람들이 성적(性的) 지향의 대안을 찾아 살아온 자가 벌써 오래고 계속 사회적 진통과 종교적 논쟁을 생산하고 있다.

대안의 삶은 타당(妥當)한가? 불가(不可)한 대안이 있고, 가능(可能)한 대안이 있다. 상대적으로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범은 그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신 인간의 존재와 사명에는 대안이 없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 성경보다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성경을 집어 던지고 맘대로 살 수 있겠다.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허구성을 역사에서 보고도 왜 또 다시 성경을 경험과 생각의 잣대로 해체하려 하는가?

어느 교회가 어느 교단이나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 대안의 삶을 꿈꾸며 성경을 수정하려는 회의를 어쩌 교단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을 떠난 대안의 삶을 시도하지 말자. 논의도 하지 말자. 그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고, 어떤 교단도 그럴 권리는 없다.

좌파의 화려한 컴백이 보인다!

이코노미스트,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주의 부활... 이를 대안으로 믿는 밀레니엄 세대 분석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20세기 이념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자본주의가 승리했고, 사회주의는 경제적 실패와 정치적 억압을 뜻하는 개념으로 전락했다. 사회주의는 변방의 모임이나 실패한 국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의례 속에서만 겨우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사회주의가 화려한 컴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미국 민주당 초선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자체가 좌측으로 선화하는 분위기다. 또한 영

국 노동당의 강경파 리더 제레미 코빈 역시 여전히 유력한 총리 후보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세대 즉 밀레니엄들에게 사회주의는 단순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세상의 불평등과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달콤한 유희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지는 좌파가 왜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밀레니엄들이 왜 추종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준다(Millennial socialism: A new kind of left-wing doctrine is emerging. It is not the answer to capitalism's problems).



망이 널리 퍼져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 재분배에 대한 지지는 199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인들은 가장 최근의 대통령 선거에서 법인세 감면을 약속한 억만장자를 뽑았다. 어떤 면에서 영국인들은 미국인보다도 부자들에게 더 너그러운 편이다. 신 좌파의 진단이 너무 비관적

사회주의는 현대 서구 사회의 병폐를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부활하고 있다. 우파 정치인들이 이념 전쟁 자체를 포기하고 국수주의나 복고주의로 회귀하는 동안, 좌파는 불평등과 환경 문제에 집중하면서 엘리트가 아닌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새로 태어난 좌파가 옳은 말을

밀레니얼, “사회주의는 불평등과 빈익부 부익부 현상 한방에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 로 인식

하는 부분도 많지만,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도 있다. 정책적으로는 예산과 관료주의, 시장에 대해 너무 순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부활한 사회주의의 활기는 놀라운 정도다. 90년대에는 좌파 정당들이 가운데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미국의 빌 클린턴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제 3의 길”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람들,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오늘날의 좌파는 “제 3의 길”은 끝난 얘기라고 생각한다. “신 사회주의자”의 다수는 놀랍게도 다른 아닌 밀레니얼 세대다. 갤럽 설문조사에서는 18-29세 미국인의 51%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얻은 청년층 득표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얻은 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2017년 프랑크 대선에서는 24세 이하 유권자의 3분의 1이 강경 좌파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그렇다고 “밀레니얼 사회주의자”가 다 어린 것은 아니다. 제레미 코빈(1949년 생)의 열성팬 가운데는 코빈의 또래도 많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의 목표가 모두 급진적인 것만도 아니다.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는 여러 선진국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들은 또한 시장경제의 이점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발호 중인 아이디어들로 이뤄진 운동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유럽과 미국에서 좌파란 넓고 느슨한 연대다.

물론 공통의 주제들이 있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은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달았고 경제는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도록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대중이 균형을 되찾기 위해 국가가 권력과 소득을 재분배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또한 근시안적 관점과 로비 때문에 정부가 기후 재앙의 가능성을 무시하게 됐다고 믿는다. 사회와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지배 계급(당국, 관료주의, 기업)이 더 이상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이 구조가 “민주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비업계의 문제나 방치되는 환경이슈 등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서구사회의 불평등 문제 역시 지난 40년 간 더욱 심각해졌다. 상위 1%의 평균소득은 242% 올랐는데, 이는 미국 평균의 소득 상승률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신 좌파”가 중요한 부분을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처방전은

대부분 잘못됐다.

진단이 잘못된 부분부터 살펴본다.

먼저 불평등이 계속해서 끝 간 데 없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은 잘못됐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중위 가구소득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10% 상승했다. 그러나 2017년에 25세에서 54세 미국인 100명 중 풀타임으로 고용된 사람은 97명이었다. 2005년에는 89명이었다. 불안함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족이 아니라 경기 불황의 위험성이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은 또한 여론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고 기회가 줄어들어 불만인 것은 사실이다. 불평등 역시 불만 요소다. 모두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는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인기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급진적인 재분배에 대한 열

이라 문제라면 처방은 더 큰 문제다. 이들의 처방은 대부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 재정정책을 예로 들어본다.

일부 신 좌파들은 정부의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는 재원으로 로지 부자들에게 대한 세금 인상으로 충원될 수 있다는 믿음에 부채질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금 있는 복지정책을 유지만 하려해도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판이다.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의 주장대로 최상위 소득자에게 70%의 세금을 걷어 두 추가로 걷히는 세금은 120억 달러, 총 세입의 0.3%에 불과하다.

일부 급진주의자들은 “현대통화이론”이라는 것을 지지하면서 정부가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지출에 필요한 돈을 자유롭게 빌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1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674-7982 (대표) (323)665-0009(광고) (718)886-4424(편집국)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6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 (718)886-0074(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은사적 표현, 인터넷 예배 활성화...

(1면에서 계속)
필자(캐리 니호프)는 영광스럽게도 매해 전 세계에 연설하며 수천 명의 지도자와 연결돼 있다. 이것은 그저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자유롭고, 특히 잘 정의되지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순전히 인기 있는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인기 있다(Attractional)'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런 교회의 찬양대는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을 이끌기보다는 그저 소리를 낸다.
△소통하는 설교자가 가슴이 아닌, 머리에 설교하고, 설교하기보다는 가르친다.
△성도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관계를 맺기보다는 어떤 행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짜다 모인다.
△초월한 생각보다는 머물러 있는 데 더 초점을 맞춘다.
왜 그럴까?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두 가지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여기 요약했듯이 입구가 바뀌었다. 인기 있는 교회의 특성은 누군가 교회에 첫 발을 디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정말로 여전히 중요하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거의 모두가 인터넷을 먼저 본 적이 있다. 혹시 지금 교회에 인터넷 예배가 없다 하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예배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 예배가 있으면, 더 깊게 더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생처럼 깊게는 아니지만, 진짜인지 알고 싶기 때문에 진짜인지 알 만큼의 깊이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 청년들이 깊은 관계와 초월성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소음과 분노의 불협화음과 같은 세상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청년들은 그들을 넘어 어떤 것, 그 누군가를 찾고 있다. 또한 줄어들 수 없고, 전혀 설명되지 않으며 말로 한정할 수 없는 경험을 찾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보다 크시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
그러나 전체 관찰 일화를 통해 이 동향을 더 깊게 생각하게 됐다. 2018년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훨씬 더 일찍 세운 것 같다는 것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운 것이다. 더 깊게 파보며,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런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거의 35세 이하였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추측이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점점 불안정하고 타락해져가는 세상에서 청년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와 빛과 장식은 경이로움과 평안함 그리고 안정감을 떠오르게 한다. 아련해 보이기도 하고, 대담한 선포이기도 하고, 또는 약간 둘 다인 경우도, 현명한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만들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확실한 시대에 교회가 경이로움과 평안함, 안정감을 줄 수 없다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쪽이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문화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 이것은 오늘날의 언론에서 들을 수 있는 절망감과 다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두는 현재 정말 인기 있는 교회에게는 큰 기회다. 이것은 갑자기 접근하기 어렵거나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한 것들이 아니다. 말투와 표현, 집



중의 변화는 모두에게 경험을 재조명할 수 있다. 목표가 특이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있는 것이다.
2. 인터넷 예배는 뒷문이 아니라, 정문과 측문으로 진화할 것이다.
교회 '인터넷 예배'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로라 터너(Laura Turner)는 뉴욕타임스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썼고, 인터넷 예배는 실제 예배와는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로라 터너는 이 블로그를 인용해서 로라 터너의 글에 관해 이메일을 통해 짧지만 굉장한 이야기를 나눴다. 필자는 대부분 로라 터너에게 동의하고 지역 교회 지도자로서 정말로 그 관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자주 우리의 대화가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이 인터넷 예배의 논의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예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지혜롭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다. 그저 구색만 갖춘 것이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다.
필자가 생각할 때 인터넷 예배는 미래에 적용된다. 가까운 미래에 인터넷 예배는 거의 전적으로, 뒷문이 아니라 정문과 측문이 될 것이다.
인터넷 예배의 초기에서는, 인터넷은 뒷문의 기능을 했다. 소비자 중심이고, 단절되거나 게으른 기독교인이 뒷문을

통해 따뜻한 침대의 안락함과 러닝머신이나 교통의 편리함을, 운전과 교통체중에서 오는 시달림과 바꿨다. 교회를 향한 기본 마음가짐이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인터넷 예배는 실제 예배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된다.
그러나 이런 기독교인은 멸종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터넷 예배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고, 빠르게 그 배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지만, 정직하게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것들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오직 이 어폰오로만 맺는다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집단은 이미 헌신자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에게 교회의 미래를 세울 수 없다. 전도는 참여의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뒷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흘러가는 사람들이다. 예배만 드리고 절대 헌신하지 않는 평범한 관찰자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미래는 없기 때문에 그 길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바란다.
인터넷 예배의 미래는 뒷문 인터넷에 있지 않는다. 교회의 미래는 정문과 측문의 인터넷에 있다.
인터넷 예배는 호기심이 있고, 회의적이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문이 될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첫 정거장이 될 것이고, 조금은 두려워서 실제 참석까지 뛰어들 용기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시 휴식 장소가 될 것이다.
필자가 섬기는 커넥서스(Connexus)교회에서 발견하고 되는 것은 처음 출석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몇 주나, 몇 달, 혹은 일 년 넘게 인터넷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문을 통과하여 인터넷 예배를 드린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인터넷 예배는 또한 특정 주일에 여행을 가거나 참석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측문이 된다. 이런 점에서 측문은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참여를 고취시킨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변화과정 때문에 이들은 주일이나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에 관한 글은 여기를 보면 된다.
그러나 잠깐, '직접 예배를 드리러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지?'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때는 측문이나 정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인터넷 예배를 뒷문으로 드리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보아왔던 거기에는 미래가 없다.
3. 교회와 단체는 실제처럼 인터넷 예배에 사람을 배치할 것이다.
(12면으로 계속)

[정정] 1719호 1면 지면안내에 게재된 3면 시론 필자가 '김인환 목사'였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네!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아름 보지 못하는 학생이 휠체어를 밀고 휠체어에 앉은 학생이 따뜻한 목소리로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도착한 강의실에서 휠체어에 앉은 학생이 열심히 강의를 필기하고 나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에게 다시 들려주면서 점자로 정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휠체어에 앉은 학생이 도저히 꺼낼 수 없는 높은 책장 위의 책을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이 찾아 가져다주면 휠체어에 앉은 학생이 소리내어 읽으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15학번 '김하은, 설진희' 학생입니다. 같은 기숙사 룸메이트인 두 사람은 서로의 눈과 발이 되어주며 지난 4년간 공부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김하은 학생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그림이나 도표가 나오면 설진희 학생이 직접 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설진희 학생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책과 물건들을 김하은 학생이 대신 꺼내주고 도서관과 강의실을 가는 길의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두 사람은 '2019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각각 서울과 울산 지역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앞으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인터넷 퍼온 글).

이 두 자매의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격려와 배려가 참 놀랍습니다.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려는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학대하며 마치 그들이 화풀이 대상인 듯 막 대하는 사람들 등등이 난무한 사회에서 이런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아직 세상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아이를 만나주소서', '제자는 행동한다.'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의 한 부부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과 노인들을 섬기기 위해 파티를 계획합니다. 직접 정성이 담긴 예쁜 초청장을 만들어 일일이 찾아가 전해주었습니다. 파티 당일 감사하게도 초청장을 전해준 모든 분들이 오셨습니다. 작은 집 마당에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웃고 노래를 부르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맞은편에는 아주 싼 값에 묵을 수 있는 작은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여관의 발코니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집 주인 부인이 마주했습니다. 그 부인은 그들의 시선에서 부러움에 가득 찬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도전과 충격이 동시에 교차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느낀 그녀는 자기 남편과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파티를 계획합니다. 부부는 성탄절 트리, 선물, 음식 등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게임 기구도 설치했습니다. 여관에 찾아가 일일이 초청장을 각 방마다 넣어 드렸습니다. 성탄절 당일 그 여관에서 많은 분들이 이 집으로 건너와 오랜만에 정말 기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중에는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타운에서 얻어준 방에서 지내는 홀리스 가족들, 수년째 홀로 방 안에서 갇혀 답답하게 지내는 노인들, 갓난 애기 하나 돌러업고 가솔한 부인, 사업에 실패하여 좌절과 절망에 곧 생을 마감하려 했던 사람 등등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장면이 이상하리만큼 선명히 그리고 감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말씀 듣고 실천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간 상급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4면으로 계속)

남가주 한인목사회 삼일절 100주년 기념행사 안내

28독립선언기념 조찬기도회
일 시 : 2월 8일(금) 7:30 AM
장 소 : 뉴서울 호텔
설 교 : 광건섭 목사 (예은교회)
축 도 : 한기형 목사 (교협 회장)
대회사 : 김관진 목사 (목사회 회장)
만세삼창 : 권영신 이사장 (한국인민교회)

남가주한인목사회의 사역과 활동을 후원하시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도네이션 해주세요.
pay to order : SCKMA

삼일절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
일 시 : 3월 3일(주일) 4:00 PM
장 소 : 남가주 새누리 교회(박성근 목사사무) 구 성전 975 S. Berendo St. L.A., CA 90006
설 교 : 피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축 도 : 한기형 목사 (남가주교협 회장)
대회사 : 김관진 목사 (남가주목사회 회장)
기념사 : 권영신 장로 (한국인민교회 이사장)
축 사 : 송정명 목사 (남가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격려사 : 김영균 회장 (남가주장로협의회)

설교 피종진 목사 대회사 김관진 목사 축사 송정명 목사

찬 양 : 남가주 목사 장로 부부 합창단 / 남가주 장로 성가단

리들리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 집결 안내
일시 : 3월 4일(월) 8:00 AM (정시출발)
장소 : 세계 아가페 선교 교회 933 S Lake St. L.A., CA 90006

■ 방문행사
- 예배
- 기념식
- 삼일독립만세 재현 퍼레이드

■ 참가문의 및 접수
김관진 회장 T.(213) 321-6019
박세헌 부회장 T.(323) 404-3147
강태광 총무 T.(323) 578-7933

리더십 코멘터리 (82)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Laws of Leadership for Church Innovation

교회는 왜 변화를 거부하는가? 지혜와 영적 능력으로 충만하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성장

안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변화의 실마리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한다. 만약 오랫동안 정

야 한다. 어느 조직이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지 않으면

교회혁신은 경청에서 시작, 우선순위 설정 단계적 해결 노력 구체적으로 누구나 참여... 멈추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 밝아

면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변화인데, 왜 변화가 어려운가? 무엇이 하나님나라를 이루

신들의 해결책을 찾는 아이디어도 담임목사 한 사람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교회사 속에서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라는 별명

기도/칼럼

마음 정리법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벌써 2월의 끝자락이다. 시간이 광속처럼 빨리 지나간다. 모세의 말처럼 세월이

혁신이 있으면 교회의 미래는 밝다

bible66@gmail.com

Large directory of church listings across various regions like NY, NJ, Toronto, etc.,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

원로칼럼

목회와 책(하)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책, 비전이 되다
책에 관한 필자의 비전이 있다. 그것은 기념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다.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센터와 함께 도서관을 만들고,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 제공하고 개방하는 것이 필자의 비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전문성이다. 각 대학마다, 신학교마다 엄청난 장서를 자랑하는 도서관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구상하는 도서관은 리더십 중심의 세계 석학들의 저서와 논문들, 국내 학자와 신학자들의 저서와 논문들을 총망라해 수집하고 도서관의 성격을 특성화 하는 것이다. 이미 기초자료 조사가 끝난 상태다.
둘째, 접근성이다. 오고 가기가 편해야 한다. 오다가다 들을 수 있는 위치와 거리가 고려되지 않으면 찾는 사람의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거리와 교통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친밀성이다. 누가 언제 찾아와도 편한 도서관, 낯설지 않은 도서관, 내 집 같은 도서관이어야 한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편히 쉬면서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성경, 찬송만 가지고 와도 설교준비가 넉넉히 갖춰진 도서관, 여가를 즐기고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된 도서관, 그런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
이러한 특징을 살린 도서관이 되려면 '함께'라는 공통분모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실 도서관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 자연히 발길이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 수집은 각 출판사의 기증도서, 은퇴 교역자의 장서기부, 학자나 신학자들의 기증도서 그리고 구입 장서 등으로 장서량을 불러 나갈 계획이다. 긍정적이고 발빠른 동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목회자의 서가가 빈약하다는 것은 사교의 영역이 협소하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서가를 메울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쉼터, 기도터, 연구터, 자아

개발터가 될 것이다. 이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멤버십을 제공하고 건설적 의견을 한 데 모아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갈 것이다.
한때 컬러 TV가 보급되기 시작하자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영화시대의 막은 내렸다. 누가 영화관을 찾아가 영화를 보겠는가?"라는 비관론이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연간 1억명이 극장을 찾아 그것도 주로 국산영화를 관람했다고 한다. 컬러 TV와 영화는 대결구도가 아니었다.
지금 우리는 무한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다. 온갖 세계의 정보를 한 자리에서 섭렵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IT 황금시대를 맞이했다. 그렇다고 활자문화는 사라지는가?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책을 읽어야 사교의 틀이 든든해지고 폭이 넓어진다.
목회자는 생각이 들직하고 폭이 크고 넓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고자료로서의 아니라 지식의 양식을 위하여 양서를 구입하고 읽고 사고하기를 힘써야 한다. 통 좁은 목회자를 만나거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교회! 이젠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자랑스럽고 대견한 교회로 성장했다. 물론 문제도 있고 사고도 치고 낮을 들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세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다. 그 정도의 사건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나 있었다. 잘못을 정당화하려 든다든지 교묘한 술수로 포장하려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한국교회! 함께 정진 차리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가자. 실추된 위상을 되찾고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자. 우리네가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두 무릎을 꿇고 감사드리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유산으로 대물림하자. 그중에 하나가 멋진 도서관이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이 크고 강하다.
주여, 이루어 주소서.
iamcspark@hanmail.net

세계기독교언론인협회 독후감 응모전 장려상



홍정주 집사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페이퍼'를 읽고 나서

참으로 오랜만에 책을 손에 들었다. 이 책은 주일예배가운데 목사님이 언급하신 책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가님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잘 알 것 같았던 것들에 대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하게 됐다.
희생이 뭐냐? 페이퍼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favor,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무엇인 듯하다.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페이퍼를 사람들에게 주며 받고 살고 있는가?
작가님이 베푸는 사랑이, 아니 큰 희생이 작가님에게 얼마나 큰 페이퍼로 돌아왔는지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고 깊이 공감하게도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맘속엔 질문이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라고.
책을 펴고 프롤로그를 읽으면서부터 내 맘에 질문은 더해져 갔다. 생명줄과 같은 심장. 병실에서 목마르게 기다려온 심장이식. 심장 이식이 아니면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기에 안타깝게 기다렸던 심장이식 수술...

그러나 작가보다 더 급한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변민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성령님의 음성과 인간의 생각이 요란스럽게 부딪치고 싸워야 했을 건데... 그 감하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게 된 작가님의 간증 속에서 얼마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꼈는지 모른다. 사랑은 희생인데...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는데...
행여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커다란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나는 그리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져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말씀하는데 분명 작가님이 큰 그릇이기에, 이미 준비된 자이기에 사용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 책속에서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이야기도 진솔히 들려줬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형. 먼저 암으로 떠나보낸 동생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그는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된다'고 적었다. 그리고 '사랑은 나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어떻게 이런 어려운 고비 고비를 넘길 수 있었을까 생각에 잠겼다.
작가는 이 고난을 뚫고 세계적인 건축설계 회사의 주인이 되는 축복

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까지 기업주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도 극심했다. 그때마다 기도한 직원이 놓치지 않겠다는 사랑을 품고 승리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이 페이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 책의 한절 한절은 사랑의 고백이며 예수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작가는 살아가는 동안 세 번째의 심장이식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Favor가 있을 줄 믿기 때문이라고.
이 책을 덮으며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보게 된다. 하지만 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나에게도 감당할 힘을 주시리라 믿기 때문이다.
나도 얼마 전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퍼를 참 많이 누리며 살았다. 내가 나는 아주 작은 것들을 주님은 귀히 보셔서 나에게 새로운 지경을 넓혀 주셨다. 그것도 나 혼자 가 아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도 만들어주시고 모든 이들의 축복과 기도 속에 삶의 터전을 옮기게 하셨다.
나는 기대한다. 작가님에게 두 번째 번 새로운 삶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단지 그 바탕에는 순종이 있어야 하기에 나도 그 순종의 사람으로 살자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내 맘속에 들려졌던 질문들을 내 삶속에서 하나씩 풀어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또한 모든 이들에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퍼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며 작가님 또한 귀하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감동의 책들로 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한다.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8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8기 개강예배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8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리는 주제로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가 주관하는 선교학교는 10주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저녁식사를 하고 8시부터 강의가 진행된다.
4월 29일 중강예배를 마치고 5월 6일부터 11일까지 니카라과(김기선 선교사)로 단기선교를 가게 된다. 2월 25일 현재 선교 참가자는 25명이 등록돼 있다.
개강예배는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권영국 목사, 성경봉독 이승진 목사, 특송 김영환 전도사, 설교 김성기 목사(

뉴욕교회), 헌금기도 이지용 목사, 환영사 김재열 목사, 축사 이재봉 목사, 축가 황총철 선교사, 축무 필그림선교무용단, 광고 장충현 장로, 축도 박준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 후에는 사무처장 장충현 장로 인도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한편 선교회는 뉴욕실버선교회 발간을 준비 중에 있다. 자세한 문외는 김경열 목사(917-963-9356)나 장충현 장로(646-309-1787)에게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영어로 보는 성경 (8)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본 강의는 영어로 말씀을 읽는데 필요한 기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깊은 신학적 해설이나 논쟁은 피하고 각권의 주요말씀 한 두 구절씩 성경의 순서를 따라 진행한다.

Joshua 1:7, 8

7)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8)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NIV 2011)

WORD & IDIOM

* courageous: 용감한 * servant: 종, 하인 * successful: 성공한, 성공적인 * turn from ~: ~로부터 방향을 바꾸다, 그만두다 *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 keep A on ~: 위에 (~하면서) 계속 A를 유지하다 A* meditate on ~: ~에 대하여 묵상(숙고)하다 * day and night: 낮과 밤 *prosperous: 번영한, 번창한 *so that A may ~: A가 ~을 할 수 있도록

GRAMMAR

(7)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강하라 그리고 아주 용감한 조심하라 순종하기(위해) 모든 율법(을) my servant Moses gave you:

나의 종 모세(가) 주었다 너(에게) => (너는) 강하고 아주 용감하여라.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 조심하여라.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마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고자 한다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쳐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라.

* Be strong: 2형식의 문장(You are strong)에서 2인칭 주어(you)를 생략하고 are를 원형 동사 Be로 바꾸면 명령문이 된다. * to obey all the law : 왜 조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to 부정사(to V)로 부사절을 이끈다. * all the law () my servant Moses gave you; ()안에 선행사 all the law를 가리키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었다. * do not turn from it: it는 율법의 정도(正道)를 가리킨다. * that you may be successful: that 앞에 so가 생략되었다.

(8)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율법 책을 늘 너의 입술에 두어라 그것을 묵상하라 낮과 밤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네가 조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도록 율법 책에 쓰인 => 너는 율법 책을 늘 읽도록 하라;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도록 네가 조심하기 위해 그것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라.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그러면 너는 (~하게 될) 것이다 번영한 그리고 성공한

=> 그러면 너는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다.

*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written은 현재분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바로 앞의 명사 everything 수식하고 있다. 이 경우 everything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cf) "to do everything (that was) written in it."

STUDY & THOUGH

■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법(law), 가르침(teaching), 교훈(instruction)으로 등으로 번역된다. 이것은 단순히 법조문의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도하고 가르쳐줄 삶의 규범과 꾀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 그 속에 내포한 진정한 의미와 궁극적인 목표를 살피고 상고하여 지켜야 했다.

■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정제된 관념적 명상(ideological meditation)이나 관조(contemplation)가 아니라 자신의 지(intellect), 정(emotion), 의(will)를 사용한 총체적인 사고여야 하며, 실제의 실천적 행위까지 이르는 추진력을 지녀야 한다. 말씀묵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다(약2:26).

■ Pursue the life which meditates on the God's word and have the divine nature within your lives and personalities.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하나님의 사람이 구할 것(딤후6:11-12)찬256장

하나님의 직접 부름으로 시작된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구해야합니까? 첫째, 경건의 성품을 구해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와 경건을, 사람에 대해 믿음과 사랑을, 자신에 대해 인내와 운율을 구해야합니다. 이 경건의 성품이 모든 사역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의 싸움을 구해야합니다(12). 내적 외적으로 몰려오는 사탄의 계계를 믿음으로

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셋째, 영생을 취해야합니다(12).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은 영생은 일하는 생명이입니다. 그 생명을 모든 삶에 누리라는 것이 교회이고 목사의 주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를 따라 이것들을 구해야합니다.

화 사도의 엄한 명령(딤후6:13-14)찬259장

목사에 관한 사도의 명령은 그 근원을 영원히 숨겨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책망 없는 사역자가 되어야합니다(13).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기에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에 나가야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자는 사람 앞에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회의로부터 부여받은 영원한 사명입니다(13). 그가

받은 목사는 창세전 삼위하나님의 결정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그의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한 부분으로 쓰임받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셋째, 예수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14). 목사의 직분은 영속적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복음을 사도와 교사인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수 목사의 하나님(딤후6:15-16)찬353장

사도는 계시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무엇을 발견했기에 경배하며 찬양합니까? 첫째, 복의 원천이신 주권자이십니다(15).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절대주권자로 모든 복의 원천이심을 안 것입니다. 그 사도의 영적경험은 하나님 나라의 대왕을 섬기는 중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동시에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큰 분을 섬기는 특권직이 목사와 교회의 부요입니다. 둘

째, 영생의 원천이십니다(16). 그는 영생자재이시기에 그가 없이 생명이 없고 사망만이 존재합니다. 셋째 성경의 원천이십니다(17). 동시에 그는 거룩하십니다. 교회가 그를 볼 수 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결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모든 방면에 성경의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합니다. 모든 일에 경건의 본이 됩니다.

목 선한사업의 열정(딤후6:18-21)찬434장

하나님이나 재물이냐를 선택해야만 하는 유혹이 항상 도사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름 받은 목사는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재물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쳐야합니다(17). 그때 천국의 의, 평강 그리고 희락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많은 선한사업을 하려는 욕심으로 충만해야합

니다(18). 그러려면 마음이 착해야 합니다. 품고 인정하고 책임지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18-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한 영생을 취하는 일 곧, 하늘의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셋째,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의 다툼을 피해야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뿌리내린 선한사업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목사가 힘쓸 일입니다.

금 진리지식을 전하라(딤후1:1-4)찬427장

디도 목사를 권하는 사도의 가르침은 진리지식을 중심한 전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목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합니까? 첫째, 사도적 길을 가는 목사는 진리지식을 전해야합니다. 이 진리는 복음이고 성경인데, 언약백성의 믿음의 근거이고 경건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내용인 영생입니다(2). 이 복음을 전함에 목숨을 거는 것이 목사입니다. 둘째, 목사는 이 진

리를 자기백성에게 전하고 세상에 전해야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3). 어떤 형태로 일하던 목사라면 있는 거기서 복음화하고 진리화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시행해야합니다. 그래서 설교와 전도와 선교는 목사의 주된 사역이 되어야합니다. 그때 예수그리스도의 사도적 권위가 나타나 은혜와 평강을 온 세상에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토 디도의 목회사역(딤후1:5-6)찬14장

초대교회의 목회사역도 오늘날처럼 신실한 목사를 지역에 세워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 중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러데선에 두어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기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여러 가지 남은 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그리스도를 중심한 질서를 위해 갖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목사는 말씀가르침의 질서로서 영적권위를 세워야합니다. 둘째,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교회로 세워 장로들로 지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전도한 후 세례를 주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활에 순종케 해 복음을 모르는 각 지역에 교회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with 7 columns and 3 rows of church listings. Each entry includes church name, pastor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Churches listed include: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금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한인교회, 새에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중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 제일교회, 양곡교회, 왕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드라마 구약 (4)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국법을 만드셨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국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것입니다. 그 헌법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율법을 받은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 영토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였습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는 시나산에서 시작하여 요단동편 모압 평지에서 끝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고별설교인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 직전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국법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했느냐하면 너무나 많은 규례와 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리들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신 책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민을 오기 전에 미국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살게 될 LA K타운 혹은 오렌지카운티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민을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에 대한 정보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정보들의 모음집이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먼저 레위기는 크게 4가지의 정보로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세 번째는 의식주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정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에 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제사와 절기입니다.

제사의 기본은 번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할 당시 유월절에 흠 없는 짐승을 죽여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마치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는 그 날 죽이지 않으시고, 한 짐승을 잡으셔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에덴동산에서 짐승을 잡으셨던 그 장면 그대로, 유월절에 흠없는 짐승을 잡았던 그 모습 그대로 재연한 것이 제사의 기본인 번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랑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에 대한 사

랑을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뿐만 아니라 자녀세대들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절기입니다. 매년 그 날이 되면 출애굽 시켰던,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한 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며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의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정보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레위기 19장과 25-26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정의법, 약자보호법, 토지매매를 금지하고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는 등의 이웃사랑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의식주 정보
주신 정보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

화와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보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정보는 18장에 기록된 가나안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부분이 성적인 음란과 타락입니다. 18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 18장 마지막 부분인 24-30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꼭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당부의 말씀 중간에 끼어있는 가나안의 실상은 음란과 패역입니다. 거의 대부

시겠다는 정보로 가득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로 이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꼼하게 챙기신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점정리 신명기
출애굽 1세대들을 통해서 주신 정보가 레위기였다면,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주신 정보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요점정리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레위기의 중요 내용을 요점 정리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최근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기록한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요점정리구요. 그리고 4장부터 26장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중요한 규례들을 요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장부터 34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며 신명기를 마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드셨고, 그 국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영토를 주시는지...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dsukim@gmail.com

하나님 나라의 국법 레위기와 신명기 레위기에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의식주, 가나안에 대한 4가지 정보 담겨

책 소개

마스칼 꽃향기

저자 정권수 선교사



온두라스 선교사로 사역한 정권수 목사가 최근 “마스칼 꽃향기” 제 3권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솔로몬을 찾아간 스바 여왕” 1권과 2권에 이어 ‘3000년전 미스터리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의 향기가 가득한

악숨’이라는 설명을 붙여 3권으로 “마스칼 꽃향기”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 2018년 9월 7일부터 14일까지 LA 생수의강교회(강신욱 목사) 에티오피아 의료선교와 복음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일정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천사를 쓴 강신욱 목사는 필자가 구약성경의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와 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메넬릭이 에티오피아 1대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아버지 솔로몬 왕이 12지파 1천명의 신복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 그 후 3천년이 지나는 동안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증거들을 확인하고 사진들을 찾으려 노력했으며 결국 에티오피아 악숨에 있다는 언약궤의 흔적을 찾아가는 모습과 그 열

언약궤를 찾아 악숨으로 가는 여정 그려

정을 소개하며 이번 선교여행에서 그곳을 지키는 한 제사장 을 만난 것도 언급했다. 이 책은 에티오피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만난 승무원 티나와 함께 언약궤가 있는 악숨(Axum,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

스 아바바에서 95km)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다. 또 그 가운데 한국전에 참전한 에티오피아의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다.

저자는 “악에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며 한국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셀라시 황제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쫓겨나 몰락하고 20년간 공산주의가 집권함으로 참혹한 상태가 돼 버린 에티오피아에 한국 교회

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후기에 적기도 했다.

책은 ‘에티오피아로 가는 길’로 시작해 ‘한국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탑(춘천시 근화동)’까지 27개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필자는 머리말과 후기,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이 글을 쓰고 나서, 참고문헌 등을 통해 이 책의 진정성을 전하려 노력했다. 총 253페이지. 에네켄한인후손 후원재단에서 펴냈다. ▲필자 연락처: ksujung818@gmail.com (유원정 기자)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